

# 광주·전남 대부분 폭염 경보

### 광주기상청, 낮 최고 33도 이상 무더위 이어져 밤사이 열대야 현상도...폭염특보 당분간 유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광주기상청은 17일 오전 11시를 기해 고흥·장흥·강진·해남·완도 등 전남 5개 군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경보로 격상 발령했다.

이로써 목포와 진도를 제외한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최고기온은 광양 광양읍 31.8도, 해남 북일 31.6도 순천 31.3도, 광주 공항·진도 의신 31.1도, 강진 30.7도, 보성

30.6도 등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 공식 관측지점인 북구 운암동은 29.8도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일사량이 크게 늘어나는 오후 2시 전후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2~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주까지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같은 기간 대부분 지역에서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의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광주·전남에 차레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기 시작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



광주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 14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주변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18일 이후에도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폭염특보는 당분간 유지

될 전망이다”며 “물을 자주 마시고 온열질환 취약계층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선욱 기자

## 동구, 9월부터 남광주시장에 도시가스 공급

광주 동구가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남광주시장에 오는 9월부터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총사업비 2억9천여만 원을 들여 남광주시장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약 841m) 및 입상관을 설치 중이다.

동구는 지난해 9월 ㈜해양에너지와 남광주시장 도시가스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구역별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월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 내 110여개 점포에 도시가스가 공급 된다.

신봉우 기자

## 서구,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광주 서구가 서구 주민 중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표본지점을 추출 선정하여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유병 및 건강관리수준, 삶의 질 등 총 142개 문항을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교육 받은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붉은색 티셔츠의 유니폼을 착용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 노트북을 이용해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인호 기자

## 남구, 백운광장 공중 보행로 등 현안사업 탄력

광주 남구 백운광장 주변에 공중 보행로를 조성하는 푸른길 공원 브릿지 사업을 비롯해 남구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 등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남구는 14일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정부 재원 확보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해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밝혔다.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인 사업은 백운광장 공중보행로 조성, 남구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 지산마을 하수관로 정비, 유안 근린공원 체육시설 보강 및 힐링 숲 조성 등 47기다.

김민정 기자

## 북구, 계약시스템 혁신방안 마련...이달부터 추진

광주 북구가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높이기 위해 ‘계약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혁신방안으로 △수계약 회수제한 △단기계약 확대 △주민참여 감독제 △계약정보 공개 △업무처리 기간단축 및 계약서류 온라인 접수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관리 △계약 담당자 멘토링제 등 7개의 혁신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계약을 방지하고 다수의 업체에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에서 시행하는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 계약 회수를 연간 4회로 제한한다.

서선욱 기자

## 광산구, 온라인으로 시민과 대화 한다

광주 광산구가 20일 오후 4시 ‘광산형 행복뉴딜 온택트(On-Tact) 시민 대화’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광산형 행복뉴딜’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해 광산구가 마련한 지역주도형 뉴딜정책, 광산구는 민선7기 2년의 성과인 ‘안전 광산’ 토대 위에 매력·활력·품격 부문 뉴딜로 규정 목표인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3개 부문 아래에 3,300억원 규모로 8대 분야 26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형택 기자

# 전남도, ‘피해 반복’ 도로시설 근본적 개선 복구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 건의

전남도는 태풍과 호우 등 여름철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를 입은 도로시설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복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도로시설 피해는 2004년 제15호 태풍 ‘메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이고 동일구간에서 도로피해가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조사 결과 145곳에 137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응급복구를 마쳤지만 곡성 오산 선제지구 등 7곳 대해서는 개선 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곡성 오산 성덕재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004년 태풍 ‘메기’ 수해복구사업으로 사방시설을

설치한 지역으로 동일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 사례이다.

전남도 박철원 도로교통과장은 “동일한 도로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현지 여건 상 전반적인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 함께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개선 복구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전남소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심리 치유

### 구례 시작 곡성·담양·나주 등 피해지역 순차적 실시



전남소방본부는 집중호우 지역 이재민 등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해 구례를 시작으로 긴급심리지원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자들의 심리

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신적 외상을 조기 발견해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소방이 운영에 들어간 ‘119긴급심리지원단’은 그동안

재난지역에서 도민들을 만난 경험이 많아 이 분야 특화된 소방서 근무 자제 심리상담사로 구성됐다.

우선 최근 집중호우로 유례없는 피해를 입은 구례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매일 이동 심리상담차량 1대와 심리상담사 3~4명이 현장을 순회하며 일평균 40여 명을 대상으로 1대1 상담을 펼치고 있다.

구례에서는 16일까지 상담이 진행되고, 이후 지역 상황을 고려해 곡성, 담양, 나주 등 피해지역도 순차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이들은 자연재해에 따른 이재민들의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 해소와 공감을 통한 심리적인 안정 유도를 1차적인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정승호 기자

## ‘위드코로나’ 행정체계 전환 광주시에 제안

광주시장 직속 혁신추진위원회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행정 체계 전환을 광주시에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시와 자치구별로 운영하는 시민소통창구를 단일화·체계화 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모바일 기반 통합민원 접수·처리 앱을 개발·보급하는 등 시 행정에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외식문화가 배달, 집(직접 요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영세점객업소 통합 서비스 예약·배달 앱 개발·보급도 제안했다.

온라인 개학과 재택근무 등 생활 중심이 온라인과 가정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비대면 온라인서비스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조인호 기자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인건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을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이여! 늦게서도 안전한 출근길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1.11배

240,833원

1.77배

125,531원

2.11배

79,147원

2.7배

48,103원

5.3배

26,697원

500위 고소득층 50위 저소득층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